

8 갈뱅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사역¹⁾

최정자 /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직신학

1. 서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었다. 고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과 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론이 전개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어떻게 인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본성론의 문제였다.

고대교회에서는 본성론을 중심한 기독교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계몽주의 이후 근대교회에서는 기능적 기독교론, 즉 “예수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했고, 예수의 참된 인간존재, 그의 하나님의 의식, 그의 내적인 삶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인간의 참된 인간성, 그의 본래적 존재, 내면적 자기 동

1. 본 글의 영문제목은 “The Study of the Work of Jesus Christ on the State of His Humiliation by John Calvin”이다.

일성에 관한 질문과 결부되어 있었다. 예수는 신인(神人)으로 이해되지 않고, 근대의 인간론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Vorbild), 또는 원형(Urbild)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²⁾

현대사회의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다원주의의 파급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침해될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폴 F. 니터에 의하면, 개신교 주류의 신학자들은 바르트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모델과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모든 종교들은 구속사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니터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그리스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³⁾ 그는 또한 앞으로 인류의 종교적 삶은 적어도 종교다원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영위될 것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변경에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요, 여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오르내리는 흥미거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⁴⁾ 실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존적 현실이며,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독교 절대성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모든 종교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비신앙적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⁵⁾

조직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론을 연구하고, 갈뱅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론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론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기독교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모든 신학에 이르는 올바른 지름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인간관을 제시해 주며,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이해를 도우며, 실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갈뱅의 경우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을 이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이중상태(status duplex), 즉 겸비상태(the state of humiliation)와 고양상태(the state of exaltation; status exaltationis)를 중심으로 다룰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 고에서 논문 분량상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상태를 중심으로 갈뱅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자 한다. 갈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는데, 그중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 둘째 조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둘째 조항에서 그리스도의 전(全) 삶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 재림 등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모든 증언을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이므로 나는 그 전부를 인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중의 여러 구절을 적당한 곳에서 언급하겠다.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보

2.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58쪽.

3. 폴 F. 니터, 변선환 역,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69쪽.

4. 위의 책, 17쪽.

5. 조재국, “에큐메니칼학의 한국교회 수용에 대한 성찰,” 한국기독교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0), 317-318쪽.

이신 복종의 다른 부분도 제외되지 않는다.”⁶⁾고 말한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사도신경’을 몇 가지 관점, 즉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즉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넘어간다. 그러나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심, 부활, 승천, 심판, 재림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본 고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갈뱅의 해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상태로서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음부에 내려가심에 국한하여 다룰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갈뱅은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따른 출생, 곧 참하나님이 참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한 놀라운 방법과 보통사람이 출생한 방법을 구별해 주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의 삶과 죽음은 구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규정들을 받아들여셨다.”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심이며, 거룩케 하시는 능력, 중보자의 참인간성과 무흠을 보여 준다.

6. *Inst.*, II xvi 5.

7.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171쪽.

1) 성령을 통한 기적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선재하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시고 몸소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기적이다.”⁸⁾라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간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음을 확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였다.”라고 말한다.⁹⁾ 김균진도 성육신의 주체가 성령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에 의한 수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리킨다. …… 이 가능성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靈)이다. 이 가능성은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근원(根源)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다.¹⁰⁾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른 출생이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qui conceptus est de spiritu natus ex Maria virgine)¹¹⁾라고 기록한다. 즉, 성령을 통한 잉태는 성령으로부터 출원된 성자의 출생을 말하지 않고, 중보자이신 성자의 출생에 성령의 어떤 기능이 도구적으로 쓰였다는 것이다.¹²⁾ 예수의 탄생은

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567쪽.

9. 위의 책, 569쪽.

10.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171쪽.

11. 라틴어 본문의 출처: 이형기,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9쪽.

12. 정홍렬, 「사도신경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22쪽.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시사하고 있다.¹³⁾

우리는 그러면 갈뱅의 경우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었다.¹⁴⁾ 예수의 탄생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모의 슬하에서 남자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¹⁵⁾ 갈뱅은 누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일반적인 섭리와 기적, 양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다.¹⁶⁾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동정녀의 수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협력 없이 여자 홀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 원인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갈뱅은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은 자연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적인 활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¹⁷⁾

49. 목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두 구절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실체(substance)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

13. 눅 1: 35~36.

14.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114쪽.

15. 존 칼빈출판위원회 편, 「공관복음주석」(서울: 성서원), 120-122쪽.

16. 위의 책, 79-80쪽.

17.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 114쪽.

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로지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 되어진 것입니다.

갈뱅은 「공관복음주석」을 해설하면서,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따른 출생, 곧 ‘신적 기원을 가지신 인성에 관한 진리’라고 말한다.¹⁸⁾ 처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한 놀라운 방법과 보통사람이 출생한 방법을 구별해 주고 있다. 즉, 참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성령의 담지자가 되었다.¹⁹⁾

2) 성령께서 거룩케 하심

벌코프에 의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수태 즉시 성화시켰고, 이로써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²⁰⁾ 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화시키는 감화력이 예수님의 잉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시고, 지상 생활에 임하여 모든 과정과 활동 속에 동참하셨고, 성령을 보내는 자가 되셨다.²¹⁾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으며, 죄인들을 위해서 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²²⁾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구절에서 “성령의 작용하시는 기능이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기능으로 이해될 때” 올바르게 이해된 것이다.²³⁾ 즉, 성령은 마리아의 태로

18.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80쪽.

19. 최운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 편, 「칼빈연구」 창간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73쪽.

2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569쪽.

21.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34쪽.

22. *Inst.*, II xiii 4.

잉태케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준비작업을 하셨다.²⁴⁾

로마 가톨릭교회는 철학적 사고에 의존하여 남성의 씨만이 종족번식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남성이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흠하다고 주장했다.²⁵⁾ 갈뱅은 그리스도의 참인간성과 무흠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다. 즉, 마니교도, 마르키온, 재세레파, 세르베투스, 로마 가톨릭교회와 논쟁을 하였다.²⁶⁾ 마니교도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空氣)의 몸이라고 주장했다. 마니교도는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거나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갈뱅은 만약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무지, 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악에도 종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신성의 은밀한 유입이라면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아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한다.²⁷⁾

멘노 시몬스(Menno Simons)는 그리스도는 무(無)에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씨가 생식에서는 수동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이며, 생식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진정한 근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했다. 갈뱅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여자가

23.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 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24. 위의 책, 75쪽.

25. 위의 책.

26. *Inst.*, II xiii 2-3.

27. *Inst.*, I xv 5.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한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하며,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신 것이라고 한다.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방법과 보통방법을 구별한다.²⁸⁾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예수의 두 본성을 다음의 글을 통하여 혼합해 버렸다.²⁹⁾

갈뱅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전(全) 과정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갈뱅은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³⁰⁾

52. 목사 : 그런데 이것이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가?

아이 : 인간의 본성(semence humaine)은 그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이 잉태에 개입하시어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분을 거룩함으로 채워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힘력으로 잉태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오염과 허물과 부패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모친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원죄 이전에 있었던 그

28. *Inst.*, II xiii 3.

29. *Inst.*, II xiv 5.

30.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 115쪽.

런 순전하고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되셨기 때문이다.³¹⁾ 갈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인 수단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야 하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될 것이다.³²⁾ 즉,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며, 인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³³⁾ 그리스도를 가리켜 ‘거룩한 후손’, 곧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 보면,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애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꼭 참된 인간이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불결과 흠이 없어야 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타락한 본성의 오염은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순결하게 지켜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 아니라 타인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잉태방법 자체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구별되게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갈뱅에 의하면, 인간이 죄의 오염이 있기 전에 있었을 그런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케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을 해설하면서 성령의 기적적인 활동으로 잉태하심으로 참인간으로서 중보자뿐 아니라 그의 무염시태를 통하여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31. 최윤배, “갈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 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32.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서울 : 성서원), 79-80쪽.

33. 위의 책, 79-80쪽.

34.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80쪽.

35. 최윤배, “갈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 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3)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정통 기독교회의 전통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길로 믿어 왔다. 만약 인간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을 것이다. 만일 예수가 단지 남녀의 성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출생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무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신인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무오성과 신인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³⁶⁾

예수 그리스도는 참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아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가 참하나님이시라는 뜻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성령의 담지자’요, ‘성령의 수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삼위일체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역사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이다.³⁷⁾

갈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말하며,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취함으로 형제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한다.³⁸⁾

그는 천사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히 2 : 16),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이와 같이 “혈육에……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히 2 : 14), 또 우리는 그와 인연이 있는 덕택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신다(2 : 11). 또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자비하고 충성된 중보가 되려 하심이라(히 2 : 17).³⁹⁾

36.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178쪽.

37.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 435쪽.

38. *Inst.*, II xiii 4.

39. *Inst.*, II xiii 1.

갈뱁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⁴⁰⁾ 이것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도 약하고, 일시적인 인격 상태로 오셨다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증보가 되려 하심이다.

갈뱁에 의하면,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연인(自然人)이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천상적이다.”⁴¹⁾ 그리스도는 아무 오점도 없고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나셨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⁴²⁾

이와 같이 갈뱁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해석을 무염수태로 해석한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새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⁴³⁾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원한 생산에 의해서 항상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⁴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총의 빛나는 거울이시며, 사람으로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으셨고, 그러므로 그는 육신에서, 태중에서도, 이와 같이 훌륭히 장식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⁴⁵⁾

40. *Inst.*, II xiii 4.

41. *Ibid.*

42. *Ibid.*

43. *Inst.*, II xiv 5.

44. *Ibid.*

45. *Inst.*, II xiv 7.

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1)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예수의 역사성과 인성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횡행했는데, 예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⁴⁶⁾ 우리말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번역했지만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이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⁴⁷⁾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내용이 교회의 일반 신조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시대가 규정될 수 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 속에서 날짜로 규정될 수 있다.⁴⁸⁾

갈뱁에 의하면, 예수의 고난을 진술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빌라도의 이름만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의 두 사람의 이름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자를 탄생시킨 여인이었다. 빌라도는 진리를 거슬러서 불의의 잣대로 예수의 처형에 동조한 비겁하고 불의한 범죄자의 모습이다. “총독이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의 진실성을 주장”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⁴⁹⁾

46. 정홍렬, 「사도신경 연구」, 142쪽.

47. 위의 책, 133쪽.

48.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강의안,” 105쪽.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신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하여 뭐라고 진술하는가? 갈뱅은 「기독교 강요」(1536)를 통하여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죽음에 그의 몸을 넘겨주시고, 그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쏟으셨다(마 26 : 28). 더구나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시고, 죄수요 행악자처럼 심판관의 인도를 받아 정죄되었는데, 이는 그가 정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높으신 심판자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⁵⁰⁾

갈뱅의 경우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은 우리들을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서 정죄 받으신 것으로 설명한다. 「기독교 강요」(1559)에서는 빌라도의 칭호를 사용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규명하고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은 우선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으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이 이 의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인간에게 더군다나 악한 불신자에게 정죄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⁵¹⁾

갈뱅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

49. *Inst.*, II xvi 5.

50. John Calvin, 양낙홍 역, 포드 베를즈 서론, 「기독교 강요」(1536), 134쪽.

51. *Inst.*, II xvi 5.

고 해방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셨다고 말한다.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갈뱅은 로마서 3 : 24~25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⁵²⁾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과 악인을 대표하신 것을 보지만, 동시에 그의 결백을 볼 때에,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뱅은 「갈뱅의 요리문답」에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유대 땅의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범법자요 또 악한으로 정죄되심은 우리가 그분의 정죄 받음을 통하여(장차) 대심판관의 법정에서(*au consistoire du grand Juge*) 무죄 방면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⁵³⁾

58. 목사 :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다(마 27 : 24, 눅 23 : 14).
아이 : 둘 다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빌라도)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보증이심을 즉, 우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⁵⁴⁾

52. *Inst.*, II xvi 5.

53.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41, 1542), 62쪽.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도구로 삼아 성자를 탄생시켰다면, 고난을 위해서는 유대 땅의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판결을 받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을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23 : 1~2에는 예수를 고소한 죄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⁵⁵⁾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황제 곧 로마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예수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신명기 17 : 12에 근거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로마법에 의해 정치적 반란자로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⁵⁶⁾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택하도록 하셨는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갈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사건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갈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죄

54. 위의 책, 116쪽.

55.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276쪽.

56. 위의 책.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기 위해서였다”.⁵⁷⁾ 즉, 우리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갈뱅의 요리문답」에는 그리스도가 죽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도말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거룩한 피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로 뿌리신 것은 우리를 향해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며 우리의 불의가 정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저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위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⁵⁸⁾

갈뱅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갈 3 : 10). 그는 죽으셨다. 이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삼키도록 된 그 죽음을 삼키기 위함이다”.⁵⁹⁾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이다.

갈뱅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중보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한다. 갈뱅은 「갈

57. *Inst.*, II xvi 6.

58.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37), 62쪽.

59. John Calvin, 양낙홍 역, 포드 배틀즈 서론, 「기독교 강요」(1536), 134쪽.

뱁의 요리문답」(1541, 1542)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auiugement de Dieu)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희생 제물(un sacrifice)이시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척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오점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은 말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어짐이 없이 되었고, 우리에게 대한 채무증서는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⁶⁰⁾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죄악을 말소시켜서, 우리에게 대한 죄의 빚을 폐기시키셨다는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다른 유익에 대하여 “우리의 낡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은 제어를 당하게 됨으로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⁶¹⁾고 말한다.

칼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해와 은총을 얻게 되었다. 칼뱅은 갈라디아서 3:10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속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과는 멀리 떠나 있었다고 말한다.⁶²⁾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

60.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1541, 1542), 122쪽.

61. 위의 책.

62. *Inst.*, II xvi 2.

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가련한 처지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과 죄의 멍에를 맨 포로, 사탄의 종,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길이 없는 신분,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는 존재일 뿐이다.⁶³⁾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죄인에게 내리려는 그 벌을 자기가 맡아 받으셨으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만든 죄악들을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으며, “이 속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배상과 희생을 드리셨으며,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다.”⁶⁴⁾

칼뱅은 바울의 글을 인용하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셨다고 선언한다(롬 4:25).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그는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쌈’으로써(사 53:10), 곧 예언자들이 부른 바와 같이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내주셨다.”고 말한다.⁶⁵⁾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와 수치와 비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배상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⁶⁾ 칼뱅은 만일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죄는 그가 당한 유죄 선고에서, 저주의 소멸은 그의 십자가에서, 만족은 그의 희생에서, 청결은 그의 피에서……. 우리의 소원이 만족될 때까지 그의 보고에서 찾아내되 다른 곳에서 찾지 말자.”⁶⁷⁾

63. *Ibid.*

64. *Ibid.*

65. *Inst.*, II xvi 6.

66. *Ibid.*

(2)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가 그 당시 고위층과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든 적대감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의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셨으니,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성부의 사랑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응답 하시면서 죄인을 대신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부의 한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⁶⁷⁾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불의에 대한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⁶⁸⁾ 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聖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했다.⁷⁰⁾

다시 말해 갈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을 행할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속죄로 말미암아 올바른 배상과 희생을 드리

67. *Inst.*, II xvi 19.

68. 이형기,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 91쪽.

69. *Inst.*, II xvi 4.70. *Ibid.*

므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다. 갈뱅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한다.⁷¹⁾

갈뱅에 의하면,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살도록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한다.⁷²⁾ 즉,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는 뜻이다. 갈뱅은 말하기를, 적대관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일소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전에 불결하고 불손하던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뜻이다.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일 4:19),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킨다.”⁷³⁾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또 굳게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를 힘입어야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면할 수 있다.⁷⁴⁾

4.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

71. *Inst.*, II xvi. 4.72. *Inst.*, II xvi 3.73. *Ibid.*74. *Ibid.*

심 등이 역사적 사실이었던지,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적, 지질학적 장소이다.”⁷⁵⁾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사람과 같이 죽어서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매장되게 되었다.⁷⁶⁾

예수의 죽음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사되셔’라고 고백하게 되었다.⁷⁷⁾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그의 겸비사역에 속하며,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 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으며, 무덤은 그를 삼켜 버렸으며,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⁷⁸⁾

루이스 벨코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비하의 한 형태”이며, 시체의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풍습이며, 또한 그의 장사되심은 실제로 죽으셨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⁷⁹⁾ 그리스도는 육체적 현존을 거두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주셨다. 그 다른 보혜사는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알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⁸⁰⁾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사건은 예수 자신에게는, 즉 기독교론적 관점에서는 구속사적 사건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옛 사람이 장사되는 구원론적이면서도 교회론적인 적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다.

75.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106쪽.

76. 이종성, 「주기도 · 십계명 · 사도신경」(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1쪽.

77. 정홍렬, 「사도행전 연구」, 160쪽.

78.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106쪽.

7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벨코프 조직신학(하)」, 575쪽.

80.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33쪽.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며, 우리를 삼켜 먹어 치우려고 하는 죽음을 삼켜 버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통해 그분과 연합하여 죄와 더불어 장사되고 악마와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구원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⁸¹⁾

칼뱅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⁸²⁾ 즉, 그리스도께서 묻히심은 그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⁸³⁾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⁸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죽음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우리가 받아 즐길 이종의 축복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결박되어 있던 그 죽음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을 누린다.⁸⁵⁾

5.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

벨코프는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심을 그리스도께서 사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의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81.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37), 62쪽.

82.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 134쪽.

83.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37), 62쪽.

84. *Inst.*, II xvi 7.

85.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37), 62쪽.

기다리는 장소인 림보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리스도가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사 완성시키시며,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시기 위해 하계(下界)로 내려가셨다고 말한다. 벌코프는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사’를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실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셋새마네의 고뇌도 가리킨다.⁸⁶⁾ 벌코프에 의하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옥행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 …… 그는 육체로 지옥에 내려가셨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몸은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⁸⁷⁾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빠졌는데, 대부분의 세계교회가 고백하고 사도신경은 이 구절을 담고 있다.⁸⁸⁾ ‘음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 ‘깊은 곳’, ‘더 낮은 곳’ 등이 있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지구보다 더 낮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⁸⁹⁾ 예수가 죽으신 후에 육체는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 속에 있었으나 그의 영은 지구보다 더 낮은 곳, 즉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약에 계승되어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해서 지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한다.⁹⁰⁾ 이 음부는 지상으로 올 수도 있는 곳인데, 저주의 장소로도 이해되었고, 무서운 죄가 성행하며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서도 행패를 부리는 무서운 곳이라고도 한다.⁹¹⁾

8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벌코프 조직신학(하)」, 576쪽.

87. 위의 책, 577쪽.

88. 이종성,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0쪽.

89. 위의 책, 173쪽.

90. 위의 책, 173쪽.

91. 이종성,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 174쪽.

갈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지옥강하’, 즉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해석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⁹²⁾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갈뱅의 「기독교 강요」(1536)를 살펴보면, “지옥강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⁹³⁾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시 21 : 9)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사 53 : 4, 11), 그리하여 우리의 빛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결코 있을 수도 없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같이 하시는 것이다. …… ‘그가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림보’라는 말이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포로로부터 놓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서 그 문들을 힘차게 깨뜨리고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위대한 저자들에게 의해 반복되어져 왔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옹호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⁹⁴⁾

갈뱅은 ‘음부에 내려가사’를 해설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하심이라고 말한다.⁹⁵⁾

갈뱅은 베드로전서 3 : 19을 해석하며, 선택 받은 자와 유기된 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⁹⁶⁾ 베드로가 여기서 뜻하

92. *Inst.*, II xvi 10

93. *Ibid.*

94.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 135-136쪽.

95. 위의 책, 135-136쪽.

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속의 능력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에게도 비쳐지고 또 분명히 나타났다는 사실일 따름이다. 그로부터 올 구원을 항상 기다리며 살았던 신자들이 그때에 분명히 얼굴을 맞대고서 그의 방문을 맞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버려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란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됨으로써,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더욱더 자기들에게 아무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⁹⁷⁾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를 위해(pour nous)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가공할 만큼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⁹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아 괴로워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의 모든 정후들을 (당신 안에서) 경험하시게 되었고, 마침내는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⁹⁹⁾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강하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⁰⁰⁾ 갈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신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96. 위의 책, 135쪽.

97. 위의 책.

98.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1537), 62쪽.

99. 위의 책, 63쪽.

100. *Inst.*, II xvi 8. “But we ought not to omit his descent into hell, a matter of no small moment in bringing about redemption.”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갈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¹⁾

갈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 즉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아버지의 노역을 푸실 수 있었다.¹⁰²⁾ 그리스도는 노하시며 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중보가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갈뱅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고통과 지옥의 공포를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다.¹⁰³⁾

6. 결론

기독교 신학에서 중심되는 교리는 기독교론이다. 기독교회사 초기부터 기독교론 논쟁은 중요 교리 논쟁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구원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우리는 갈뱅의 기독교론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론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논문 분량상의 이유로 갈뱅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101. *Inst.*, II xvi 8.

102. *Inst.*, II xvi 11.

103. *Ibid.*

상태의 사역 중 겸비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논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령을 통한 기적 사건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준비시키셨고, 모든 과정에서 성화케 하셨다.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시태가 동정녀 마리아의 순결성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논리에 의지하여 남성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대해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염시태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고 반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동기는 아담의 범죄를 통한 타락이며,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다. 갈뱅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구원론, 성령의 기적, 증보자의 참인간성과 그의 무흠이라는 동기가 지배적 사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하여, 갈뱅은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실제 인물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서 겪었던 고난이며, 실제로 당한 역사적 처형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신적, 대속적 죽음인 것이다. 갈뱅은 형벌대속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만족을 강조하는 안셀름의 만족설(객관설)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아벨라르의 도덕설(객관설)도 수용하고, 특별히 죄에 대한 형벌과 '대리' 또는 '대속'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와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기독교적 의미와 함께 교회론적이며, 구원론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은총은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오는데,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 그

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격렬한 무서움을 느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증보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이해한다.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원화된 사회, 다원 종교 상황 속에서 일부 교회와 신학은 시대 조류에 편성하여 기독교의 독특성과 십자가의 도가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종교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차원 등으로 이해하여, 성령이 가르치는 고유한 복음의 구속사적 차원을 희생시키거나 심지어 탈색시키기 까지 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이런 사상에 반대하여 갈뱅이 주장한 증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사역에 나타난 구원론적인 모티브는 영원불변한 진리로 수용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무염시태를 성령의 기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갈뱅의 주장은 오늘날 성서 신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일부 교회나 신학에서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신학적 틀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주의와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하사"에 담긴 내용을 성서적 진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